

임용시험 후기

옥영순(2003학번)

응시지역: 광주(2005년 12월)

근무학교: 정보고

안녕하세요.

옥영순입니다.

이번에 합격해서 광주 정보고로 발령났습니다.

2차 시험 후기를 보냅니다.

1차는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실거 같구요.

교육학 사이트에 후기 올린거 다시 복사해서 첨부한 것이니까 한번 편집하시는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수고하세요.

제가 평소 공부에 임하는 신조가 "어려운 것은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입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천지차임을 알기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해서
기억이 회미해지기 전에 몇자 올립니다.

광주 영어과목 2차시험은 첫날 논술과 면접, 둘째날 수업지도안, 영어 에세이, 수업 실연으
로 나뉘 치뤄집니다.

*첫째날

<논술>

주제는 "요즘 학생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는데 학생인권을 존중할 경우 교사의 교육력 저
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는 학교 현장의 실제 예를 들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라"였습니다.

광주 논술은 전통적으로 실질적인 주제가 자주 등장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올해도 변함이 없
었습니다.

1000자 원고지에 90분간 작성하면 됩니다.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
뉘 글을 잘 구성하고 작성하면 되고 15분전까지는 원고지 교체도 해줍니다. 저는 스터디 회
원들과 4-5번 정도 글을 써봤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실제 예를 잘 들려면
관내에 이슈화 되었던 사건이나 교육청 게시판 등을 둘러보며 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두발 자유화와 체벌을 예로 들었구요.

<면접>

점심을 먹고난 후 순번 추첨이 있습니다. 교사실에 들어가면 A,B,C형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데 저는 A를 골랐죠. 질문은,

1)교사가 다른 직종과 다른 점 3가지

2)교원평가제의 내용 3가지

3)모둠학습이 개별학습 보다 나은 장점 3가지

4)지필평가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를 하는 이유 3가지

5)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서 교실 뒤에 서 있으라고 했는데도(TIME OUT) 여전
히 주위가 산만하다.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였습니다.

5명의 면접관이 있는데 각자가 질문하고 수험생은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각 질문에 1분안에 답변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바를 또박또박 자신있게 말하면 됩니다. 질문을 듣고 몇조만 생각하고 바로 대답해야하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 두시는것이 좋겠지요. 저는 논술 준비하면서 모둠학습의 장점을 공부했던 덕분에 바로바로 답변을 했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실제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자칫 헛설수설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저 또한 약간 벅거렸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없으니까요. 차분히 생각을 가다듬고 자신의 소신을 섞어(하지만 반드시 교육적인 대안이 되도록 답변해야 함) 논리있게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거든요. 친구들에게 들은 다른 유형의 질문에는 "광주가 의로운 고장으로 꼽히는 이유 3가지, 수행평가의 단점 2가지 이상, e-learning의 단점 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시험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광주시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미리 공부하고 갔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사전 조사 없이 가면 많이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듣기로는 "광주가 의로운 고장이라 불리는 이유"를 가장 어렵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둘째날

<지도안>

용지는 B4이지만 실제 공간은 A4 정도입니다.고등학교 1학년 교학사 리딩 부분이 제시되었는데 아주 적절한 지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안과 수업시연에서 점수를 잘 맞은 편이었는데 이유는 지문 분석을 잘했기 때문인거 같아요. 리딩부분이지만 내용이 발음으로 인한 에피소드 3가지가 제시되고 두번째 에피소드로 수업 지도안을 짜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지문이 "Two similar sounding words"로 인한 에피소드의 이유가 bum을 bomb으로 발음한데서 유래 됐다는 것에서 학습의 목표를 1)유사한 모음 발음을 구분할 수 있다와 2)에피소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로 잡았습니다. 수업활동도 리딩의 전형적인 skim, scan이 아니라 활동위주의 좀더 액티브한 수업으로 짰구요. 주어진 리딩의 내용 자체가 어려운 지문이라기 보다는 발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버스가 테러범이 탄줄 알고 경찰서로 직행했다는 해프닝이었거든요.

이 지문이 영어를 배우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고 저는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하는 글이었다고 보았죠. 때문에 skim이나 scan으로 지도안을 짜는것이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읽기 전 활동에서 예문을 통해 minimal pairs를 제시하고(ex: comb-calm, boat-bought 등등) 영어의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지시킨 다음, 읽기과정에서는 사진과 pre-reading questions를 보고 guessing하기, 테이프로 내용 들어 보기, 짝과 read aloud 하기를 넣었죠. 읽기후 과정에서는 활동위주로 짰는데, 전개를 읽고 짝과 story board 완성하기(pair work)와 단어 릴레이 게임(팀별 게임, 유사한 모음 발음이 들어간 문장을 교사가 제시하고 팀별로 뒷사람에게 전달 한후 마지막 학생이 칠판에 써서 확인하는 게임: 학생들이 발음을 잘못하면 어떤 문장으로 오해해서 전달되는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음)을 집어 넣었습니다. 시연 할때는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였구요. 팀별 점수를 주겠다는 동기부여도 해야합니다. 실제로 시연중에 평가위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읽었던

것도 같습니다.

한가지, 지도안 공간이 나중에 부족해 칸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필로 미리 적절한 공간을 나눠두고 볼펜으로 나중에 테두리를 치시는게 좋을듯 싶군요. 나중에 평가나 과제제시 공간이 부족해서 시험중에 당황하게 됩니다.

<수업시연>

수업시연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개부분을 7분간 시연하는 것이었고 점심후 순번 추천한후 모든 책이나 핸드폰을 회수합니다. 때문에 수험표에 간단히 지도안을 메모해 두고 연습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기 순번 되기 10분 전쯤에 지도안 복사본을 주는데 그전에 친구들과 시간을 재보며 연습할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중에 약간 빠먹은 부분이 있었는데(다들 그럴테지만 연습 많이 했어도 막상 들어가면 많이 긴장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말 없이 바로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수업 지도안을 잘 짜야만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연때 고치려 해도 지도안에 있는대로 수업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치고 싶어도 안되거든요. 저의 경우는 3명에서 스터디를 짜서 연습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도 재보고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한 수업이었는지 체크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를 상기 시키고 평가기준도 말하는 것 잊지 않아야 하구요. 미리서 activity 몇가지도 생각해 두면 괜찮을듯 싶구요. 저는 교과서에 나온 모둠 활동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괜찮은 활동을 메모해 두었더니 실제로 시험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에세이>

지도안과 함께 120분간 마쳐야 하는 시험입니다. 용지는 B4이지만 실제 공간은 A4정도 됩니다. 300단어 내외의 영어 에세이로 토플 형식의 작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read aloud가 EFL에서 주로 쓰이는 보편적인 활동이다. read aloud의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 그리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에세이는 당연히 시험전에 스터디 회원들과 주제를 정하고 직접 써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되겠거니 했다가는 낭패입니다. 저는 지도안을 먼저 짜고 영어 에세이를 작성했는데 시간은 약간 남았습니다. 지도안을 슬렁슬렁 짜면 수업시연도 망치기 때문에 지도안을 정성들여 짜시고 에세이는 40분 정도에 마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기타>

* 수업시연의 순번이 뒤로 밀리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58명중에 중간정도였는데도 6시간이나 추운 교실에서 기다려야 했거든요. 평가위원들도 고생이고 수험생들도 지칩니다. 간단히 간식거리(초콜렛이나 사탕, 보온병 음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점심을 제공해 주기는 했는데 다들 긴장되서 조금밖에 안먹었다가 후회 많이들 했거든요. 춥고 지치고 배고프니 더 힘이 없어지거든요.

* 지도안 준비를 리딩만 하지 마시고 말하기나 듣기도 한두번은 연습해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 리딩이나 아니나로 다들 초조해 했거든요.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하기나 듣기파트도...

아무튼 저는 좋은 결과로 끝나서(합격했거든요) 다행이지만 1차나 2차에서 낙담한 친구들이 많아 아쉽습니다. 다시 힘찬 도약하기를 빌고 새로 도전하는 모든 임용 준비생들도 힘내시길 빌게요. 핫팅!